

# 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에 "눈 가리고 아웅" 철회 촉구

### 이재명 "우물에 독극물 풀어놓으면서 안전하다" 주장 "일본에 안전하면 재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할수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응은 안 된다"며 시찰단 파견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주장을 일본이 내세우고 있다"며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면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변 사람들 국가에서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안전하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진짜 안전함을 스스로 증명하면 될 일"이라며 "마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놓으면서 이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그런 억지주장에 동조해서 '오염수 처리수'라고 왜곡을 조작해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일본에 당당히 말해야 한다. '안전하다면 최소한 마시진 않더라도 농업이든 공업용수든 재활용하는게 맞다. 그렇게 쓰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라며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냐는 말을 듣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대표답게 행동 하라고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들도 가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려는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오염수를

안에 두면 자기들이 불리하고 자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해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국민의힘의 도 지나친 친일은 경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발 오염수에 대해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플래카드도 '오직 국민만 생각한다'고 하던데 그 국민은 한국 국민인가, 일본 국민인가"라며 "한일전 촉구 시합이 벌어지면 대통령실은 과연 어느

나라를 응원할까, 저만의 공급증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부가 국민의힘이 대변할 건 일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일본 대변인 노릇하라고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주는 것이 아니다. 대변인 노릇 할 거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 안전 두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 안전을 포기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실익은 없고 국익, 국민의 안전만 해칠 시찰단 파견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 이재명, 김기현 '李 코인투자' 주장에 "전수조사하면 될 것"

### 김기현 "김남국 코치에 따라 투기한 것 아닌가" 이재명 "의심 있다면 즉각 조사 실시 요청" 김남국 실질조사 어렵다 지적에도 "신속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 대표도 김남국 의원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에 동참한 것이 아니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에 "전수조사를 해보면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된 질문에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김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의 자진 탈당과 민주당의 쇄신총 결과 등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꼼수 탈당을 평소 입법독재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민주당에 탈당은 정계 조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거론하면서 "이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의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라 이 김 의원에 대한 사퇴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니냐"며 "아니면 혹시 이 대표도 김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오전 11시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MWC2023 개회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조사를 지속하는 게 본인 동의 없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코인 문제는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사실은 본인들이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전수조사에 즉각 응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용일기자



## 강진균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최종 의결

강진균의회(의장 김보미)는 지난 15일 제 290회 강진균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창주위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창주 의원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승인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빠르면 올해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할 계획이다. 도쿄전력 공개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20일 기준, 약133만㎥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저장용량의 약 97%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2023년 공동연구에 따르면, 제주 남쪽 해역에는 방류 4~5년 후부터 유입되고, 오염수 방류

10년 후에는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창주 의원은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성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하여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객관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하였다"고 비난했다. 김창주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나 유감, 반대한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내비치지 않은 채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무조정실, 국회의원,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b>기사제보</b> (062) 222-2580	<b>광고문의</b> (062) 228-2580
-------------------------------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